



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문제에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일관된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근거하여 역내 질서를 창출해 냈습니다. 아시아에는 여러 국가들을 묶을 수 있는 일관된 역내 질서가 없습니다. 양자관계가 지배적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조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도발적 행동을 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한 중국은 허용할 수 없는 최저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비난

을 받는 이웃 국가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협력 증진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힘의 균형 구도에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자체가 이 지역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합니다. 세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서 유럽연합은 국제정치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 핵 문제 타결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자 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유럽연합은 파리기후협정 실행을 앞장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이미 굳건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시장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과 별개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유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요 정치적 이슈,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면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가 보다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지도자세션 기초연설Ⅲ]

훈살마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



부산-몽골-유럽 잇는 번영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주포럼에서 세계 리더들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과제와 공통 목표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발전에서 아시아의 위상과 역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면적이 세계 대륙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 48개 국가에서 거주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급증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아의 기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와 현재 도달한 수준을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해 번영 비전을 구상하고, 실행 방안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공동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안정적인 번영이 없고, 번영 없이 평화를 강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주포럼의 의제인 아시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과 연결시킨 것을 지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는 세계 미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대한 협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몽골 국회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몽골의 지속가능 발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제 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식으로 공유하여 보급하고, 기술과 재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

여 아시아 국가들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시킨다면 아시아 발전의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다질 것이며, 이것이 아시아 미래의 공통적인 비전이자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몽골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아시아 미래와 연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는 몽골에 있어 향후 자국 발전을 보장하는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몽골 외국인 투자의 약 40%, 무역의 약 70%, 수출의 약 80% 가량이 동북아 국가와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 분야 교류도 활발합니다. 수천 명의 몽골국민들이 동북아에 장기간 혹은 단기간 방문하고 있으며, 역내에는 역사와 문화가 유사한 국가들이 공존합니다. 몽골 대외정책 지침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우호 친선 교류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태지역 다자 협력에 참여하며, 동아시아와 동북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전략적 안정 강화, 안보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여 참여한다.”

따라서 몽골은 동북아 미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미래 발전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안보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통합의 참여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 통합을 우선시하는 일은 정치와 안보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미래를 확정하는 데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각 국가는 자국의 과제가 있고, 고유의 전통과 풍습,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와 공동체지역의 공통 권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통의 권익을 함께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 제주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포럼은 오늘날 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책임있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한 아시아 공동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서 아시아의 기여도, 위상과 역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역 내 신뢰와 평화로운 공존 조건을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문제 중 하나는 인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을 무력으로 보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경제 성장으로 보장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인류 안전 보장은 아시아 미래를 위한 비전 중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식품안전, 물 부족, 자연파괴와 전력소비의 증대 등 중요한 글로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다각적인 협력에 의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주포럼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북아 번영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동북아는 3개 주요 경로의 교차 지점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가 포함되며 한반도는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 지점으로 실크로드 동부 지역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치와 경제 성장, 미래 잠재력으로 보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며 물류, 승객 운송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의 철도노선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지역 내 운송 네트워크가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부산에서 유럽까지 중국 동부 3개 성, 러시아 극동 지역, 몽골, 일본 수출입의 일부가 한국 철도를 통해 이용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가능합니다. 몽골과 북한 등 동북아 여러 국가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경제 발전 범위가 지역을 넘어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을 이루고 아시아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